

숨은그림찾기 <102>



찾아(보)세(요) 음표, 셔플룩, 칠솔, 대접, 몽영연필, 아이스크림, 가지, 열대어, 부엌칼

장타의 고수

골프를 즐기던 한 남자가 과 5홀에서 힘차게 티샷을 날렸다. 그런데 공이 그만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자가 두 나무 사이로 공을 날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팔찌를 휘둘렀다.

그런데 나무에 맞은 공이 튕겨지며 그의 이마를 때려 숨을 거두고 말았다.

천국에 간 그에게 수문장이 물었다.

수문장 : "원래 골프를 잘 쳤나요?"

남자 : "단 두 타만에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모르세요?"



지난주 정답

칠솔, 은행잎, 스펀, 다리미, 고추, 바늘, 열대어, 사람 옆 얼굴, 허마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최원주(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김옥중(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전설적 레슬러 역도산 사망

레슬링 하나로 2차 대전 후 일본 국민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신화적 존재, '역도산'의 마지막은 초라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 프로 레슬러로서 한국과 일본에서 전설적 영웅으로 대접받았던 역도산은 지난 1963년 12월 8일 술집 화장실에서 칼을 맞았다.

전 프로레슬링 세계 챔피언 '디스트로이어'와의 2주일만에 결친 시합을 끝내고 상쾌한 기분으로 찾았던 동경 미나토구 '뉴 라인 쿼터'라는 나이트클럽에서 조지 폭력배와 시비가 붙으면서다.

시작은 "발을 밟았다, 안 밟았다"는 말다툼에서 비롯됐지만 폭력배가 흥기를 휘두르면서 역도산은 아랫배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처가 악화되면서 복막염으로 7일 뒤인 15일 숨졌다.

함경남도 흥원군 용원면 출신인 역도산의 본명은 김신락. 그는 16세때 일본으로 건너가 씨름계에 투신, 스모 선수가 됐다가 일본인이 아니면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없는 현실에 은퇴하고 도미, 프로레슬러로 변신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프로레슬링을 시작한 뒤 13년동안 세계선수권, 국제선수권, 아세아 및 일본선수권을 독차지했고 시합

회수 2천600여회를 거듭한 인기 레슬러가 됐다.

특히 거구의 미국 레슬러들에게 특기인 '가라테츄(당수)'를 날려 거구러트리는 모습은 일본 국민들을 열광시켰고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당시 일본은 2차대전 패전국으로 절망에 몸부림치던 때로, 프로레슬링 붐은 막 싹트고 있던 TV보급율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일본 전역을 들끓게 했다.

그는 특히 식민지 출신의 설움과 분단의 비극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탓에 고국을 잊지 못했고 10살 아래였던 재일교포 장훈을 비롯한 많은 교포들을 후원하며 도움을 줬다.

그의 수제자로 알려진 고토네 다카히로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력배의 칼을 맞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진 뒤에다 '할 일이 많아 죽고 싶지 않다'면서 '성공해서 고향에 가야 하는데...'라며 눈물을 쏟았다"고 회고했다.

그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지난 1963년 1월 8일, 당시 공황은 영웅을 보려는 환영객들과 꽃다발을 전달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는 이 때 "국내 체육계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며 다짐했지만 이 약속은 같은 해 그의 죽음에 따라 무위로 그쳤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93. 한국축구 월드컵 대표팀 사령탑에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이 감독은 내년 2월 시작되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경기부터 대표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7년 만에 국가대표팀의 국내파 감독시대를 연 이 감독은 누구일까요.
①허정무 ②김 호 ③차범근 ④김정남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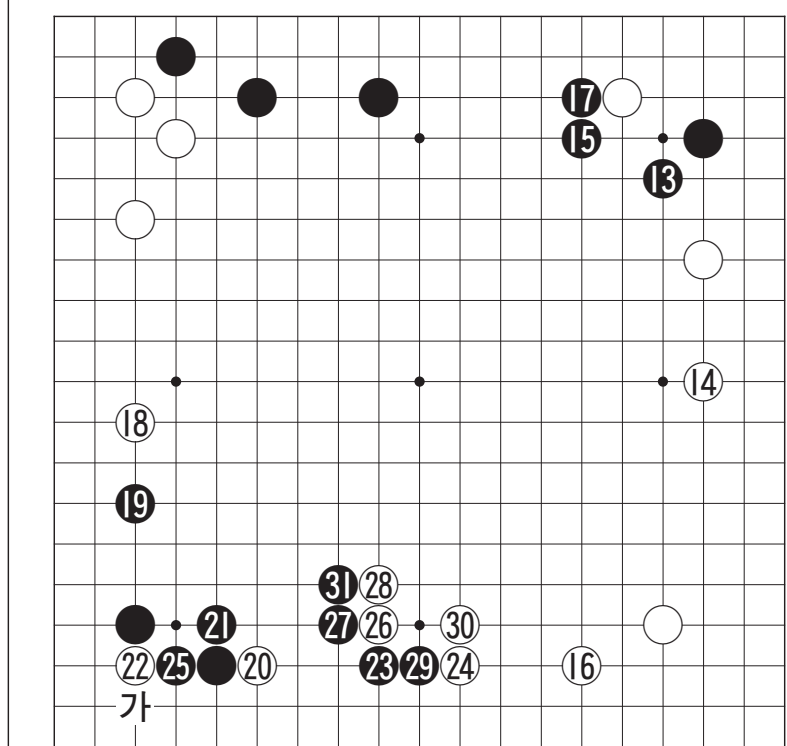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2일(음 11월3일 庚辰)

Table with 12 rows, each representing a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its corresponding fortune for the day. Each row includ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day's luck and a reference nu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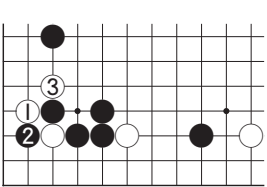
제88회 전국체전

일반부 결승전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광주대표인 심재욱 6단 승승장구, 일약 동메달을 획득하는 맹활약을 펼쳐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최근의 아마 바둑계가 연구생 출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대단한 활약으로 광주광역시 종합4위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혹 19까지는 서로 큰 곳을 차지하는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진행이다. 혼자 좋은 곳을 차지할 수는 없으므로 포석의 기본요령은 맞보는 곳을 남겨야 한다.

맛보는 곳을 남겨라 2보(13~31)

白 송홍석 6단 (경기도)
黑 김남훈 7단 (광주시)



<참고도>

백 20이 송홍석 6단 변칙수로 김남훈 7단 응수를 뚫고 있다. 보통 이렇게 붙어가는 수는 흑을 굳혀주어서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19가 좁은 벌림이기 때문에 좋은 작전으로 보인다.
백 22가 예정된 연타. 이때 김남훈 7단 23으로 비키고 25로 빈삼각으로 막았는데 이 수로는 '가'로 두고 싶다. 이 수는 다음에 '참고도'의 맛을 남기고 있다. 흑 31까지 서로 내 길을 가는 진행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강동운, 박카스배 천원전 첫승

강동운 7단이 충남 태안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열린 제12기 박카스배 천원전 결승 3국에서 원성진 8단을 190수 끝에 백 불계로 꺾고 2패 뒤 첫승을 신고했다.
강 7단은 초반 기선을 빼앗겼으나 원 8단이 실수를 범하자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이후 중앙 흑대마를 모조리 포획하는 무서운 뒷심으로 대역전을 일궈냈다.
강동운 7단은 지난 2003년 이후 원성진 8단에게만 6연패를 당했던 안면을 끊었다.제4국은 오는 18일 열린다. 제 12회 박카스배 천원전의 우승상금은 2천만원이며 대국 제한시간 1시간은 1시간.
/윤영기기자 penfoot@

굿모닝 잉글리쉬 <1053>

It's time to call home to say hi to my parents. 집에 전화 걸어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 A : I have been traveling for about 1 week. It's time to call home to say hi to my parents.
B : Yes, you should make a phone call.
A : Do you know how to make an international phone call?
B : It's not difficult. You just have to dial the USA's International call code, 011, then Korea's country code, 82, then dial area code 062 and dial your home phone number directly. That's all.
A : 여행을 시작한 지가 일주일 정도 됐네요. 집에 전화 걸어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B : 그러세요. 전화 드려야지요.
A : 국제 전화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B : 어렵지 않아요. 먼저 미국 국제전화 코드를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한국 국가번호 82를 누르세요, 그리고 지역번호 062를 누르시고, 집번호를 누르세요, 그러면 됩니다.

* make a phone call : 전화 걸다
* just have to ~ : ~하기만 하면 됩니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053>

銀行にも預金(よきん)しているのさ。 은행에도 예금하고 있어.

- A : これ何。ずいぶん大きな瓶(びん)だけど。
B : これかい。貯金箱(ちよきんばこ)。500円玉しか入ってないんだよ。貯(た)めて、貯(た)めて、車を買いたいんだよ。
A : いっぱいになったら、車買(か)えるの。
B : いや、これだけでは足りないから、銀行にも預金(よきん)しているのさ。
A : 그거 뭐야? 꽤 큰 병인데.
B : 이거? 저금통. 500엔 짜리만 들어 있어. 모으고 모아서 차를 사고 싶어.
A : 가득 차면 차 살 수 있는 거야?
B : 아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은행에도 예금하고 있어.

瓶(びん) : 병
貯金箱(ちよきんばこ) : 저금통
預金(よきん) : 예금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30>

会不会? 할 줄 아니?

- A: 你会不会打篮球?
Nǐ huì bú huì dǎ lánqiú?
니 후이 부 후이 다 란치우?
B: 我不会打篮球。
Wǒ bù huì dǎ lánqiú.
외 부 후이 다 란치우.
A: 你会不会打网球?
Nǐ huì bú huì dǎ wǎng qiú?
니 후이 부 후이 다 완치우?
B: 我会打网球。
Wǒ huì dǎ wǎng qiú.
외 후이 다 완치우.
A: 너 농구 할 줄 아니?
B: 난 농구 할 줄 모르는데.
A: 너 테니스 할 줄 아니?
B: 난 테니스 할 줄 몰라.
籃球 [lánqiú] 농구
打 [dǎ] (체육활동이나 어떤 놀이를) 하다
网球 [wǎng qiú] 테니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670>

權不十年(권불십년) 권세 권, 아니 불, 열십, 해 년

권불십년(權不十年)은 권세는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언젠가는 쇠퇴하기 마련이고, 부귀영화도 일시적인 뿐 계속되지 못함을 비유한다.
중국 남송의 시인 양만리(楊萬里·1124~1206)는 월계(月桂)를 읊은 시에서 "단지 꽃은 피어야 10일을 못 넘긴다고 말하지 만(只道花無十日紅), 이 꽃은 어떤 날도 볼바람 아닌 적이 없다네(此花無日無春風)"라고 하였다. 즉 다른 꽃은 열흘 만에 지고 말지만 양생장미인 월계꽃은 사시사철 피어나는다는 점을 칭송한 것이다. 여기에서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여성의 젊고 아름다운 전성기가 짧음을 비유하게 되었다. 이후 '화무십일홍'의 대구로 '사람의 좋은 날은 백일을 넘기지 못한다(人無百日好)'라던가, '권세는 10년을 넘기지 못한다(세불십년장·勢不十年長)'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권불십년'도 이러한 말을 배경으로 하여 '세상살이의 변화무쌍함'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일설에는 조선 말 불우한 처지에 있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위와 같은 구절에 '달도 차면 기울니(月滿卽虧)', 권력인들 10년을 넘지 못한다(權不十年)'는 말을 즉흥적으로 덧붙여었다고도 한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

Advertisement for Derma Plast skin care products. It features a photo of a woman and child,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 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